

임진왜란기(1592~1598) 상급 수군 투구[冑]의 유형별 특성과 일러스트화

이 주 영
동명대학교 전임강사

The Type Characteristics and Illustration of War Helmets Worn by High Navy Officer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1592~1598)*

Joo-Young Lee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ung University
(투고일: 2010. 6. 30, 심사(수정)일: 2010. 9. 23, 게재확정일: 2010. 12. 27)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ar helmets that were worn by high navy officer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1592~1598)*. War helmets worn during the War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a visor or '*cheom*' and tongues or '*drim*'. The war helmets of circumferential type has neither *cheom* nor *drim*. Those of *cheom* type has *cheom*, but not *drim*. And those of *drim* type has both *drim* and *cheom* or *jeonbi*. The war helmets of *cheom* type consist of a *gamtu* which is made of steel and looks like a reversed bowl and *cheom* that surrounds the entire circumference of *gamtu*. The war helmets of *drim* type are reclassified into two types in accordance with the shape of the *gamtu* and whether they have *ganju*. Of the two types, one type looks like a reversed bowl and has decorations on the top without *ganju*. The other type looks like a bottle neck and has *ganju* on the top, decorations above *ganju*. War helmets were in transitio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Both the war helmets of *cheom* and *drim* types were worn during the War. At that time, the officers also wore war helmets having no *ganju* and looking like a reversed bowl and those having *ganju* and looking like a bottle neck. During the period, most war helmets were made of steel, but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most of them were made of leather.

Key words: high navy officer(상급 수군), illustration(일러스트화), *Japanese Invasion of Korea*(임진왜란기), type characteristics(유형별 특성), war helmet(투구)

I. 서언

조선 수군은 임진왜란 초기(1592~1593. 4)에는 전승(戰勝)을 통해 불리한 전쟁의 국면을 회복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였고, 강화교섭기(1593. 5~1596)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전력 강화에 최선을 했으며, 정유재란기(1597~1598. 11)에는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7년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¹⁾

지금까지 임진왜란과 임진왜란 당시 해전(海戰)의 주역이었던 수군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과와 군사학계를 중심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²⁾ 그러나 수군 복식을 주제로 한 논문, 특히 수군이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던 임진왜란기의 수군 복식에 관한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군 복식은 무관 복식의 범주에 속하고, 육군과 수군의 복식이 종류와 형태면에서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수군 복식에 관한 연구도 무관 복식에 관한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와 <당포전양승첩지도(唐浦戰洋勝捷之圖)>에 임진왜란 당시의 해전장면이 묘사되어 있어 수군들의 옷차림을 고찰할 수 있고, 임진왜란 당시 수군과 관련된 직책을 역임했던 인물들의 유물도 다수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수군 복식에 관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수군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임진왜란기(1592~1598) 상급 수군 복식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먼저 투구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당시 수군 군복 문화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방상현에 의하면 수군의 진영체제는 통영(統營)·주진(主鎭)·거진(巨鎭)·계진(諸鎭) 등 4단계이며, 통영은 현재 사령부와 같은 기능이고, 주진은 2~3개의 지역을 지휘하는 지역 사령부이고, 거진은 읍(邑)정도의 지역을 관장하는 부대이고, 계진은 파견부대적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 또한 통영의 지휘관을 수군통제사·주진의 지휘관을 방어사·거진의 지휘관을 첨절제사·계진의 지휘관을 만호라 하여 그 지휘 계통이 종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말단 지휘관인 만호에게 절대권이 주어졌다고 한

다.³⁾ 본 연구에서는 수군의 행정체계상 지휘관에 속하는 통제사·방어사·첨절제사·만호 등을 편의상 '상급 수군'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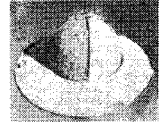

우리나라 투구에 관해서는 이강철·송계현·김정자·박가영·장경숙·민승기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⁴⁾ 이들은 현존하는 투구 유물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고, 특히 박가영은 조선시대 전 시기를 중심으로 투구의 유형을 개관하고 시대구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투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임진왜란기에 착용된 투구의 전체 구조와 세부 형태가 변화되는 양상, 그리고 18·19세기에 정착되어가는 과정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의 투구 유물을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18·19세기의 투구와 중국 원·명대의 투구도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의 투구 유물과 임진왜란 및 수군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둘째, 투구의 유형을 분류한 다음 형태·재질·문양 등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셋째, 투구의 유형별 특성에 근거하여 대표 유물을 선정한 다음, 착장모습을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러스트화로 제작함으로써 시각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표 유물로 선정된 투구와 투구의 일러스트화는 향후 임진왜란기의 투구를 복원·재현하는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 자료의 임진왜란 및 수군 관련성 검토

현존하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의 투구[靑] 유물은 류성룡(1542~1607)·정공경(?~1610)·황대근(1577~1636)·이완(1602~1674)의 투구 4점과 동래읍성 해자에서 출토된 투구 2점이 있다. 또한 정충신(1576~1636)의 투구는 1975년에 도난당하여 현재 실물은 없고 사진만 전해지고 있는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1>⁵⁾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의 투구 유물 총 7점과 착용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투구 유물 내역

착용자	류성룡	정공칭	정충신	동래읍성해자출토 2차 1단계 투구 2차 2단계 투구	황대곤	이완
생물연대	1542~1607	?~1610	1576~1636	임진왜란 전후	1577~1636	1602~1674
추정 착용시기	16세기 후반	16세기 후반	16세기 후반~ 17세기 전반	임진왜란기	16세기 후반~ 17세기 전반	17세기
관직 (품계)	도체찰사 (정1품)	1600년 조라포만호 (종4품)	1621년 만포첨사 (종3품)	-	파총 (종4품)	1643년 삼도수군통제사 (종2품)
투구 사진						
임진왜란 관련 유무	有	有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有 (1592년 권율 휘하 종군)	有	無	無
수군 관련 유무	有(추정)	有	有	-	有(추정)	有

<표 1>에 의하면 투구 유물 착용자 중 임진왜란 또는 수군과 관련 있는 인물은 정공칭·정충신·황대곤·이완 등 4명이다.

정공칭과 정충신은 임진왜란 및 수군과 모두 관련 있는 인물이다. 정공칭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동하였고 정충신은 1592년 권율의 휘하에서 종군하였으며, 정공칭은 조라포 만호(종4품)·정충신은 만포 첨사(종3품) 등 각각 수군과 관련된 관직도 역임하였다.

황대곤과 이완은 임진왜란과는 관련이 없지만 수군과 관련 있는 인물이다. 황대곤은 무과에 올라 병자호란이 발생한 다음 해인 1637년에 청나라 군사와의 전투에 의병으로 참전하여 갑곶진을 방어하다가 전사하였으므로⁶⁾ 수군과 관련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 이완 역시 임진왜란에는 참전하지 않았으나 경기수군절도사(정3품)를 역임하는 등 수군과 관련된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상에서 정공칭·정충신·황대곤·이완은 모두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수군과 관련 있는

인물로서, 종2품의 삼도수군통제사·정3품의 수군절도사·종3품의 첨사·종4품의 만호 등의 직책을 지낸 것으로 보아 이들의 투구 유물 4점은 임진왜란기 상급 수군의 투구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공칭·정충신·이완의 경우 투구와 함께 갑옷도 남아 있으므로 이들의 갑주 유물은 임진왜란기 상급 수군의 갑주 착용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임진왜란기에 문관이었던 류성룡의 투구와 착용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동래읍성 해자에서 출토된 투구 2점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류성룡은 원래 문관이었으나 선조 25년(1592) 12월에 평안도 지역의 최고 군령권자인 도체찰사(정1품)에 임명되고, 선조 28년(1595) 10월에는 경기·황해·평안·함경의 4道の 도체찰사가 되면서 임진왜란기에 현지에서 전쟁 업무를 총괄하였다.⁷⁾ 따라서 그의 갑옷과 투구는 임진왜란기 육군과 수군의 모든 군무를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의 차림새로 추정된다. 물

론 류성룡은 무관도 수군도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의 투구와 갑옷은 임진왜란기 갑주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동래읍성 해자에서 출토된 투구는 부산지하철 3호선(수안정거장) 건설부지 내 목익포합층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층에서는 투구 외에 갑옷과 도·창·목궁·화살촉·괘지·단도·낫 등의 무기류도 출토되었다.⁸⁾ 특히 갑옷이 공반된 층은 1592년 4월 15일에 치열하게 벌어진 동래성 전투와 관련된 것이므로⁹⁾ 투구의 착용자는 임진왜란기에 활동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투구의 착용자가 수군인지 상급지휘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 근거들을 통해 해자출토 투구를 임진왜란기 상급 수군의 투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군사들은 육군에서 수군으로, 수군에서 육군으로 배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임진왜란기 전라좌수군 지휘부 또는 이순신 참모들의 활동을 보면, 권준은 1597년에 나주 목사가 되었다가 칠천량 해전이 끝난 후 충청도 수사가 되었다가 1599년에는 경기도 병사가 되었고, 나대용은 임진왜란 시기 주요 해전에서 세운 전공을 인정받아 1596년에 강진 현감이 되었으며, 명량해전에서 큰 활약을 보였던 안위는 1598년에 전라우수사로 봉직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 전라도 병사로 봉직하였다.¹⁰⁾ 또한 조선후기 동래부에 소속되었던 군사들을 보면, 속오군·아병·이노작대·승작대·수군·기병·분방사노 등 각종 명목의 군사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유사시 육군과 수군의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 하였다.¹¹⁾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동래읍성 해자에서 출토된 투구와 갑옷은 임진왜란 당시 육군과 수군에게 모두 착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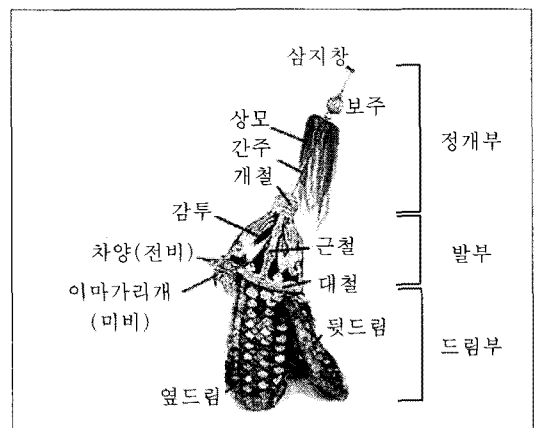
한편, 동래읍성 해자에서 투구와 함께 출토된 갑옷은 류성룡의 갑옷과 같은 찰갑형이다. 이러한 찰갑형 갑옷은 중국의 갑옷에서도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고급·중급·저급 관리계급과 일반전사가 모두 갑옷을 입었으나 소용되는 갑찰의 크기와 수에 따라 상하가 구별되었다. 예컨대 관리계급의 갑옷은 갑편의 크기가 작고 수가 많은데 반해 일반 전사들의 갑옷은 갑편의 크기도 크고 수도 작았다.¹²⁾ 동래읍성

해자에서 출토된 갑옷은 중국 관리계급의 갑옷과 같이 갑찰의 크기가 작고 수가 많으며, 만들새도 매우 정교한 것으로 보아 상급 지휘관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갑옷과 함께 출토된 투구 역시 상급 지휘관의 것으로 추정된다.

Ⅲ. 임진왜란기 상급 수군 투구의 유형 분류와 조형 특성

1. 투구[靑]의 구조와 명칭

전술한 <표 1>에서 언급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의 투구는 18·19세기의 투구와 부분적으로 약간 다를 뿐 기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진왜란기 투구의 구조와 명칭을 언급할 때 구조가 변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8·19세기에 사용되었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18·19세기 투구의 구조와 명칭에 관해서는 이강철·김정자·민승기·박가영의 선행 연구가 있으며,¹³⁾ <그림 1>¹⁴⁾은 투구의 구조와 명칭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18·19세기 투구의 구조와 명칭
조선의 무기와 갑옷, 2004, p. 367.

이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8·19세기 투구의 구조와 명칭을 정리하면, 투구는 크게 발부(鉢部)·정개부(頂蓋部)·드림부[鐙部]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발부는 투구의 몸체부분으로서 감투·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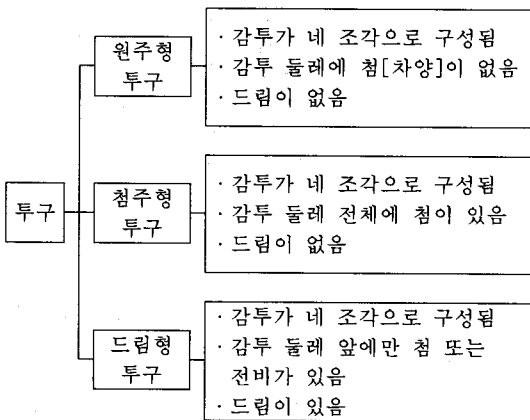
(眉庇: 이마가리개)·전비(前庇: 해가리개)로 구성되어 있다. 감투는 네 조각의 삼각형 모양을 연결하여 만들었는데, 네 조각으로 된 감투의 전후좌우에 근철(筋鐵)을 대어 서로 연결한 다음 감투의 정상은 개철로, 감투의 둘레는 대철(帶鐵)로 마무리하여 감투의 형태를 잡아주고 있다. 감투의 앞면 중앙 하부에 미비가 있고, 그 위에 전비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임진왜란기에는 감투의 둘레 전체에 침(簷: 해가리개)이 둘러져 있는 투구도 보인다.

둘째, 정개부는 발부의 윗부분으로서 개철·간주·눗쇠판·상모·보주·삼지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철(蓋鐵) 위에 간주(幹柱)를 세우고 원형의 눗쇠판을 얹고 이곳에 붉은 상모(象毛: 삭모(槩毛))를 늘어뜨리고, 그 위에 다시 보주(寶珠)를 얹고 정상에 삼지창을 꽂았다. 임진왜란기에는 간주가 없는 투구도 보인다.

셋째, 드림부는 발부의 아래부분으로서 드림은 좌우에 2조각, 후면에 1조각 등 총 3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진왜란기에는 드림이 없는 투구도 보인다.

2. 투구[冑]의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임진왜란기에 착용된 투구의 유형을 문헌기록과 현존유물, 그리고 김정자·박가영의 연구결과¹⁵⁾를 참고하여 침[차양]과 드림의 유무에 따라 원주형(圓冑形)·침주형(簷冑形)·드림형의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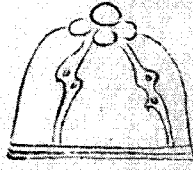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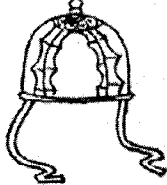
〈그림 2〉 임진왜란기 투구의 유형 분류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림 2〉는 임진왜란기 투구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1) 원주형 투구

원주형 투구는 감투가 네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침과 드림이 모두 없는 투구이다. 이는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서례에 '원주(圓冑)'라는 명칭과 함께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유물은 없다. 이를 정리하면 〈표 2〉¹⁶⁾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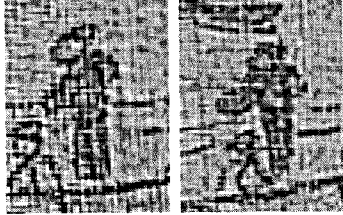
〈표 2〉 원주형 투구

『세종실록』오례 (1450 전후)	『국조오례의』서례 (1474)
	

〈표 2〉에 의하면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에 묘사된 원주형 투구는 감투 부분이 네 조각의 철판으로 되어 있고, 각 철판의 경계선에 근철을 대고 작은 못으로 연결하였는데 마치 그릇을 얹어놓은 듯한 모양, 즉 북발형(覆鉢形)으로 되어 있다. 정개부를 화엽형(花葉形)의 판으로 고정하여 감투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였고, 그 위에 간주 없이 바로 보주형(寶珠形) 장식을 하였으며, 양 옆에 끈을 달아 턱 밑에서 묶어 벗겨지지 않도록 하였다.

원주형 투구는 감투만으로 제작된 단순한 형태라는 점에서 15세기 후반 하급 군졸들의 투구로 추정되고 있다.¹⁷⁾ 그런데 원주형 투구는 형태는 단순하지만 그 소재가 철제라는 점에서 하급 군졸들이 착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임진왜란 당시 배 위에서의 전투장면을 알 수 있는 회화자료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¹⁸⁾와 〈당포전양승첩지도(唐浦戰洋勝捷之圖)〉¹⁹⁾를 보면, 일반 수졸들은 배 위에서 전투할 때 투구나 갑옷을 입지 않고, 전립 또는 조건을 쓰고 포를 입고 있는데 이를

<표 3> 임진왜란기 회화자료에 묘사된 일반 수졸들의 모습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전립 착용	<당포전양승첩지도> 전립 착용	<당포전양승첩지도> 조건 착용
		

<표 3>²⁰⁾에 정리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투구와 갑옷은 제작공정이 복잡하고 만드는데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상급 수군에게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 복원된 동래읍성 해자출토 철제 갑옷의 무게는 무려 8kg 정도인데²¹⁾ 이 무게는 성인 남자가 입고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군사가 갑주를 입고 배에 탔을 경우 무게감이 상당하므로 갑주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해 미리 마련된 갑옷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기에 일반 수졸들이 철제 투구와 갑옷을 착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진다.

한편, 우리나라 고대의 투구를 보면, 대부분 갑투에 불가리개 또는 목을 가리기 위한 드림이 부착되어 있다.²²⁾ 그런데 <표 2>의 원주형 투구는 갑투만으로 되어 있어 드림의 존재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 드림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원주형 투구에 드림이 있었다는 가설이다. 박가영의 견해대로 원주형 투구에는 조선초기 무인석상의 투구와 같이 옆과 뒤쪽에 한 장으로 연결된 드림이 늘어뜨려져 있다는 것이다.²³⁾ 비록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에 묘사된 원주에 드림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조선초기 무인석상에서와 같이 1조각 드림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원주형 투구에 드림이 없었다는 가설이다.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에 묘사된 수은갑·유엽갑·피갑·지갑 등의 갑옷을 보면, 목선이 위로 올라가 있고 여기에 별도로 목에 둘러 목부분을 보호하는 호항(護項)까

지 있어 갑옷만으로도 어느 정도 목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투구에 드림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원주형 투구의 드림 여부는 이후 유물이 발굴될 경우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 침주형 투구

침주형 투구는 갑투가 네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갑투 둘레 전체에 침은 있으나 갑투 아래에 드림은 없는 투구이다. 이는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에 ‘침주(簪冑)’라는 명칭과 함께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악학궤범(1493)』의 정대업정재의물도설(定大業呈才儀物圖說)에도 ‘주(冑)’라는 명칭과 함께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겹은 흑색 단(段)·안은 홍색 초(緇)로 만들어 조선시대 정대업(定大業) 춤을 출 때 무무(武舞) 공인이 쓰던 장식용 투구로 사용되었다.²⁴⁾ 현존하는 유물로는 정충신과 황대곤의 투구, 동래읍성 해자출토 투구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²⁵⁾와 같다.

<표 4>를 보면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에 묘사된 침주와 『악학궤범』에 묘사된 주는 기본 구조가 원주와 동일한데, 다만 침과 상모가 더해지고 끈이 달린 부분에 장식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침주형 투구는 침이 있어 햇빛을 가릴 수 있다는 기능적인 면과 상모가 있어 모양새도 살릴 있다는 미적인 면에서 원주형 투구보다 더 발달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가 규정될 당시에는 원주형 투구와 침주형 투구가 모두 있었으나, 임진왜란기에 이르러서는 침주형 투구가 주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박

<표 4> 침주형 투구

『세종실록』오례(1450 전주)	『국조오례의』서례(1474)		『악학궤범』(1493)
			
정충신(1576-1636)	동래읍성 해자출토		황대곤(1577-1636)
	2차 1단계 투구 	2차 2단계 투구 	

<표 5> <정왜기공도권>에 보이는 투구와 갑옷의 모습

① 투구+갑의+갑상			② 투구+갑의+갑상+피막	
				

가형은 침주형 투구가 원주형 투구에 장식이 더해진 투구라는 점에서 원주형 투구보다 높은 계급에서 착용된 투구로 추정하였는데,²⁶⁾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견해이다.

정충신의 투구는 목제(木製)로서 정개부가 손실된 상태이다. 갑투는 네 조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한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복발형이다. 갑투 표면에 무늬를 시문(施紋)한 흔적은 없고 목리문(木理紋)이 뚜렷하게 보일 뿐이다.

동래읍성 해자출토 투구 2점은 전체적인 형태면에서 정충신의 투구와 유사하지만, 갑투가 네 조각으로 되어 있고 철제(鐵製)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점 모두 네 조각으로 된 갑투의 전후좌우에 근철을 대어 서로 연결하였고, 정개부는 원형 철판을 대고 고정하였는데 중앙이 둥글게 돌출되어 있다. 다만, 부위별 치수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원형 철판의 지름은 각각 6cm·9cm이고, 첩의 너비는 각각 3.6~4.6cm·4.6~5.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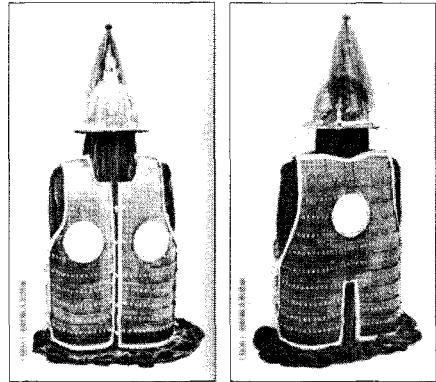
황대곤의 투구는 동래읍성 해자출토 투구와 형태와 재질이 동일하다. 다만, 첩의 너비가 넓고²⁷⁾ 정개부가 화염형 철판인 점이 다르며, 정상에 부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주형 장식은 손실된 상태이다.

한편, 침주형 투구는 임진왜란 당시 전투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정왜기공도권(征倭紀功圖卷)>에서 볼

수 있는데, 갑주(甲冑)를 입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을 <표 5>²⁸⁾에 정리하였다. 그런데 <표 5>를 보면 <정왜기공도권>에 보이는 침주형 투구에는 간주가 곧게 세워져 있고 정상에 상모가 달려 있다. 간주가 있다는 점만 다를 뿐 전술한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 서례에 묘사된 침주와 거의 동일하다. 이에 <정왜기공도권>에 묘사된 인물들이 우리나라 군사인지, 지원군으로 왔던 명나라 군사인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갑상의 착용 여부로서 추정해 보고자 한다.

<표 5>에 의하면 <정왜기공도권>에 보이는 인물들은 갑의와 갑상을 입고 있는데, 갑상은 우리나라 갑옷에서는 흔치 않은 양식이다. 현존하는 갑옷 유물 중 갑의[의갑]와 갑상[상갑]이 분리되어 있는 양식은 여반(1699~1773)의 갑옷이 유일한데, 여반의 갑주양식에 대해 김정자는 중국 청의 갑주양식을 따른 것이라고 하였고,²⁹⁾ 『조선왕조실록』에도 갑상과 관련된 기록이 거의 없는 가운데 간혹 일본 사람들의 갑옷차림을 언급할 때 갑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³⁰⁾ 그리고 갑상은 대개 갑옷 윗동의 길이가 엉덩이를 겨우 가려주는 짧은 길이일 때 사용되는데, 전술한 <표 1>을 보면 임진왜란기의 정공청·정충신의 갑옷은 포형(袍型)이고, 동래읍성 해자에서 출토된 갑옷 역시 길이가 61cm로서³¹⁾ 골반 아래까지 보호되므로 갑상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상이 임진왜란기에 우리나라 군사들에게 착용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왜기공도권>에 묘사된 간주와 상모가 있는 침주형 투구를 쓰고 조끼형태의 갑의와 갑상을 입고 있는 군사들은 우리나라 군사라기보다 명나라 군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그림 3>³²⁾은 북경정릉지하궁전(北京定陵地下宮殿)에서 출토된 명대의 철회(鐵盔)와 철개갑(鐵鎧甲)의 전후 모습인데, 투구 표면에 금속장식이 화려하게 되어 있다는 점만 다를 뿐 침주형 투구이고, 개갑의 길이가 허리길이 정도로 짧다는 점에서 <정왜기공도권>에 묘사된 인물들의 차림새와 매우 유사하다.



<그림 3> 명대의 철회(鐵盔)와 철개갑(鐵鎧甲)
中國織繡服飾全集, 4, 2004, p. 225.

한편, 침주형 투구는 일찍이 원대(元代)에도 있었다. <표 6>의 ①³³⁾은 침주형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는 원대(元代) 병졸의 모습인데 투구에 간주가 없다. <표 6>의 ②³⁴⁾는 원대(元代)에 착용된 여러 립자(笠子)의 모습인데, 철제 투구는 아니지만 네 조각으로 되어 있고, 첩이 넓게 둘러져 있으며, 정상에 구슬 또는 꽃봉오리 모양의 장식이 있다는 점에서 투구의 형태와 거의 동일하다. 이들 립자들은 형태면에서 간주와 상모가 없다는 점만 다를 뿐 <정왜기공도권>에 묘사된 투구와 <그림 3>에서 제시한 명대의 투구와 닮아 있다. 특히 수건 같은 천 조각을 뒷목 아래로 늘어뜨리고 그 위에 립자를 쓴 착용방식은 <정왜기공도권>에 묘사된 투구의 착용방식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원대에 이미 침주형 투구가 있었고, 명대에 이르러 간주가 달리고 투구 표면에 금식(金飾)이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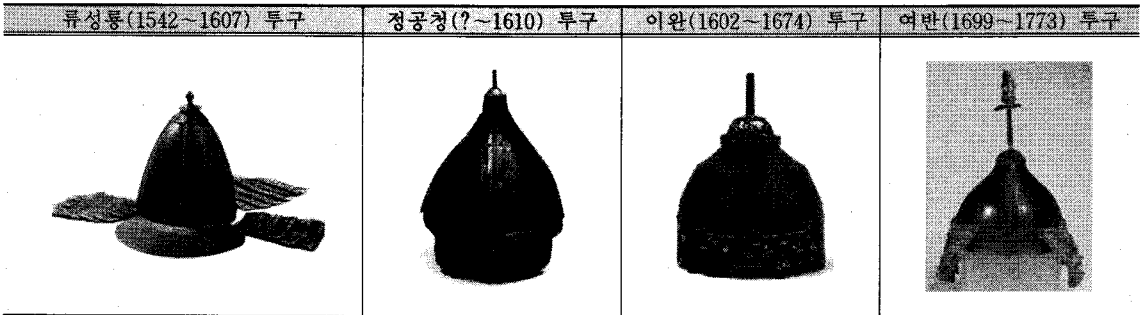
3) 드림형 투구

드림형 투구는 갑투가 네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갑투의 앞에만 첩 또는 첩이 약화된 전비가 있고 갑투 아래에 드림이 있는 투구이다. 드림형 투구는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에 명칭도 없고 그림도 없지만, 현존하는 16·17세기의 유물에 드림이 있는 투구가 있으므로 이를 유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임진왜란기의 드림형 투구는 류성룡의 투구와 같이 첩이 앞에만 있고 드림이 있는 형태와 정공청·이완의 투구와 같이 전비와 미비가 있고 드림이 있

<표 6> 원대(元代)의 침주형 투구와 립자



<표 7> 드림형 투구 유물



는 형태가 있다. 한편, 여반(1699~1773)의 투구는 임진왜란기의 것은 아니지만 정개부를 고찰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7>³⁵⁾과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류성룡의 투구는 감투가 철제이고, 네 조각으로 된 감투의 전후좌우에 근철을 대어 서로 연결하였다. 정개부는 『국조오례의』서례의 원주·침주와 같이 화엽형 철판을 대고 고정하였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작은 원형 판이 있고 그 위에 간주 없이 바로 보주형 장식이 달려 있다. 감투의 앞에만 반원형의 침[해가리개]이 달려 있다. 드림[목가리개]은 좌우후면에 3조각 늘어뜨렸는데, 철로 감찰을 만들고 가죽 끈으로 좌우와 상하를 연결하여 완성하였고 길이는 18·19세기 투구 유물보다 짧아 착용시 어깨에 겨우 닿을 정도이다. <그림 4>³⁶⁾는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4세기 후반의 철제 투구로서 간주가 없고 반원형의 차양과 드림이 있는 형태로 추정되고 있는데,³⁷⁾ 투구의 앞에만 침[차양]이 있다는 점에서

류성룡의 투구와 유사하다.



<그림 4> 고려시대의 철제 투구
韓國의 甲冑, 1987, p. 188.

정공청의 투구는 류성룡의 투구와 마찬가지로 감투가 철제이고, 네 조각으로 된 감투의 전후좌우에 근철을 대어 서로 연결하였으며, 드림은 투구와 별도로 보관되어 있다. 드림의 걸감은 거의 없어지고 무명 심지가 드러나 있는데, 가장자리에 남아 있는 천 조각으로 볼 때 감투의 걸감과 동일하고 두정 역시

지름이 2cm인 낫쇠로서 갑옷의 두정과 동일하다. 드림 3조각에 사용된 두정은 모두 45개이고, 좌우 옆드림을 먼저 고정시킨 후 뒷드림을 그 위에 약간 겹쳐 고정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³⁸⁾ 정공청의 투구는 류성룡의 투구와 달리 전비와 미비가 부착되어 있으면서 정개부·발부·드림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비록 정개장식이 유실되었고 갑투의 표면에 용이나 봉황을 화려하게 새긴 금속장식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진술한 <그림 1>에서 제시한 18·19세기의 투구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기에 드림형 투구의 외형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완의 투구는 현재 정개장식·전비·드림이 모두 유실된 상태이다. 정공청의 투구와 마찬가지로 갑투가 철제이고 발부·정개부·드림부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갑투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미비를 별도로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라 이마 라인만 표현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개철의 모양은 반구형(半球形)이고, 간주를 중심으로 화문(花紋)을 입사(入絲) 상감하였고 중앙에는 쌍룡(雙龍)과 연화당초문(蓮花唐草紋)을 투각하였다. 갑투의 둘레에 8cm 간

격으로 여의두(如意頭) 문양을 배치하면서 쌍조대선(雙條帶線)을 입사 상감하였고, 정면에는 화염문·육판화·뇌문(雷紋) 등을 장식하였다.

여반(1699~1773)의 투구는 갑투 표면에 장식만 없을 뿐 18·19세기의 투구와 거의 동일하다. 투구의 갑투는 피혁제(皮革製)에 흑칠을 하여 만들고 낫쇠로 개철과 간주, 정개 장식을 하였다. 여반의 갑옷에는 경갑이 있어 굳이 드림으로 목을 보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드림의 길이가 귀만 가릴 정도로 짧다.

3. 투구의 유형별 조형 특성

현존하는 임진왜란기 투구 유물은 침주형과 드림형 투구만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조형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표 8>은 임진왜란기 투구의 조형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1) 침주형 투구

(1) 형태 분석

<표 8>에 의하면 임진왜란기 침주형 투구의 갑투

<표 8> 임진왜란기 투구의 유형별 조형 특성

유형	침주형 투구				드림형 투구				
	착용자	정충신	동래읍성 해자출토		황대근	류성룡	정공청	이완	
2차 1단계			2차 2단계						
생물연대		1576~1636	임란전후 추정		1577~1636	1542~1607	?~1610	1602~1674	
재질(발부+드림부)		목제	철제	철제	철제	철제+철제	철제+직물	철제+직물	
발부	갑투	모양	복발형 (1조각)	복발형 (4조각)	복발형 (4조각)	복발형 (4조각)	만곡형 (4조각)	만곡형 (1조각)	
		재질	목제	철제	철제	철제	철제	철제	
		가로:세로	-	1 : 0.93	1 : 0.89	-	1 : 1.19	1 : 1.11	1 : 1.09
	침	유무	有(갑투전체)	有(갑투전체)	有(갑투전체)	有(갑투전체)	有(갑투전면)	無	無
		너비	-	3.6~4.6	4.6~5.3	-	-	-	-
	미비	無	無	無	無	無	有(山形)	無	
	전비	無	無	無	無	有(반월형)	有(逆花瓣形)	有(손실)	
정개부	정개·개철모양	-	원형	원형	화염형	화염형	원통형	반구형	
	간주	-	-	-	-	無	有(사각형)	有(팔각형)	
	유무	-	-	-	-	無	4	6.1	
	높이	-	-	-	-	無	4	6.1	
	정개장식	-	-	-	-	보주	손실	손실	
드림부	겉감	-	-	-	-	철제	남색 운보문단	견직물 추정	
	심감	-	-	-	-	-	무명	마직물 추정	
	안감	-	-	-	-	-	-	-	
	비고	-	-	-	-	-	두정	두정	

는 그릇을 얹어 놓은 듯한 복발형인데, 정충신의 투구는 한 조각으로 되어 있고 동래읍성 해자출토 투구와 황대근의 투구는 네 조각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동래읍성 해자출토 투구와 황대근의 투구를 비롯하여 이후에 보이는 류성룡·정공칭·여반의 투구는 물론 현존하는 18·19세기의 투구가 모두 네 조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진왜란기에도 네 조각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투가 네 조각인 경우 전후좌우 네 곳에 근철을 대어 서로 연결한 다음 정개부를 화엽형 또는 원형의 철판으로 고정하였다. 첩은 감투 둘레 전체에 둘러져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서례·『악학궤범』에 묘사되어 있는 투구의 정개부를 보면, 화엽형의 판과 보주형 장식, 그리고 뒤로 늘어뜨린 상모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화엽형은 황대근의 투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동래읍성 해자에서 출토된 투구는 정개부가 원형 철판으로 고정되어 있고 중앙이 둥글게 돌출되어 있을 뿐 별도의 보주형 장식은 없다. 따라서 임진왜란기 침주형 투구의 정개부는 화엽형 또는 원형 철판으로 고정하였고, 보주형 장식과 상모장식이 더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술한 바에 의하면 원대(元代)의 침주형 투구와 『세종실록』오례·『국조오례의』서례·『악학궤범』에 묘사된 침주형 투구, 그리고 동래읍성 해자출토 투구에는 간주가 없으나, <정애기공도권>에 묘사된 침주형 투구(<표 5> 참조)와 명대(明代)의 침주형 투구(<그림 3> 참조)에는 간주가 있다. 따라서 명나라 군사들이 착용했던 간주가 곧게 세워진 침주형 투구가 임진왜란기에 우리나라 군사들에게도 착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16·17세기의 유물과 회화자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동래읍성 해자출토 침주형 투구와 류성룡의 드림형 투구에 간주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기의 침주형 투구에는 간주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재질 및 문양 분석

침주형 투구는 정충신의 경우 목재 한 조각으로

되어 있고, 동래읍성 해자출토 투구와 황대근의 투구는 철제 네 조각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투구의 재질에 따라 구조가 다른 것은 목재인 경우 통나무를 깎아 내는 것이, 철제인 경우 네 조각을 이어 붙이는 것이 머리모양에 맞는 투구를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임진왜란기의 침주형 투구는 철제가 일반적이고 표면에 무늬를 넣거나 장식을 덧붙인 흔적은 없다.

<그림 5>³⁹⁾는 연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철제 침주로서 착용시기가 18세기로 추정되고 있다.⁴⁰⁾ 그런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17세기에는 침주형 투구에서 드림형 투구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18세기에는 드림형 투구의 재질이 철제에서 피혁제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그림 5>의 철제 침주는 임진왜란기의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림 5> 철제 침주
韓國의 甲冑, 1987, p. 210.

2) 드림형 투구

(1) 형태 분석

① 발부

<표 8>에 의하면 임진왜란기에 드림형 투구는 그릇을 얹어 놓은 듯한 복발형이 1점이고, 투구의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만곡형⁴¹⁾이 2점이다.

복발형은 류성룡의 투구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복발형이라 하더라도 전술한 침주형 투구에서 보여지는 반구형의 복발형과는 달리 윗부분이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 복발형과 만곡형의 중간단계라고 생각된다. 현존하는 18·19세기의 투구가 모두 만곡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진왜란기는 복발형과 만곡형이 공존하는 가운데 점차 복발형에서 만곡형으로 변화되는 과도기라고 생각된다.

드림형 투구의 침을 보면, 류성룡의 투구에는 감투의 앞에만 반원형의 침이 달려 있는데 반해, 정공청·이완(흔적 있음)·여반의 투구는 물론 현존하는 18·19세기의 투구에 모두 침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 전비가 달려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기는 반원형의 침과 전비가 공존하는 가운데 점차 반원형의 침에서 전비로 변화되는 과도기라고 생각된다.

② 정개부

〈표 8〉에 의하면 임진왜란기에는 류성룡 투구와 같이 간주가 없는 양식과 정공청·이완의 투구와 같이 간주가 있는 양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는 아직 정개부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과도기임을 알 수 있다.

간주의 유무는 감투의 모양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복발형의 경우 정개부가 화형형 철판으로 고정되어 있고 간주없이 바로 보주형의 정개장식을 한데 반해, 만곡형의 경우 감투의 정상을 원통형의 개철로 고정하고 여기에 4~6cm 정도의 간주를 세운 다음 정개장식을 하였다. 이로써 간주는 복발형 투구에는 사용되지 않고 만곡형 투구에는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공청과 이완의 투구에는 간주는 있는데 정개장식은 유실된 상태이다. 정개장식은 투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탈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따로 보관되었던 관계로 보관상의 편리함도 있었겠지만 그 만큼 유실될 가능성도 컸던 것이다. 임진왜란기의 유물은 아니지만 18세기 초 여반의 경우 정개장식은 물론 이를 보관하는 정개부보관통(頂蓋部保管筒)도 남아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여반의 투구 최정상에는 불꽃모양의 장식품이 있는데, 18·19세기 투구에는 주로 삼지창이 장식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③ 드림부

임진왜란기의 드림형 투구에는 모두 3조각의 드림이 달려 있는데, 옆드림이 2조각·뒷드림이 1조각이다. 18·19세기의 투구에도 이와 동일한 드림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투구의 드림부는 임진왜란기에 이미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재질 및 문양 분석

감투의 재질은 3점 모두 철제인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기에는 철제 투구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19세기의 유물들을 보면, 이봉상(1676~1728)의 투구는 종이를 여러 겹 겹친 다음 흑칠한 것이고, 18세기 초의 여반(1699~1773)의 투구와 국립경주박물관·온양박물관·충렬사·육군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동아대학교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18·19세기의 투구들은 대부분 피혁제에 흑칠을 한 것이다.⁴²⁾ 즉 임진왜란기에는 철제 투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18세기 초부터 피혁제 투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투구의 재질 변화에 대해 김정자는 화약무기의 발달 때문이라고 하였다.⁴³⁾ 예컨대 칼·활·창 등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할 때는 이를 막기 위하여 중후한 철제 갑옷과 투구가 효과적이지만, 조총이라는 새로운 화약무기로 전쟁을 할 때는 몸을 민첩하게 움직여 피하는 것이 주된 방어이므로 무거운 철제보다 가벼운 피혁제나 종이로 만든 갑주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서양에서 들여온 조총으로 무장하였는데, 임란 이후 철제 갑옷과 투구가 화약무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투구의 재질이 철제에서 피혁제로 변화되었고, 18세기 초부터는 피혁제 투구가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드림부는 갑옷의 제작방법과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정공청의 경우 남색 운분단 걸감과 무명 심감 2겹을 겹쳐 두정장식을 완성한 다음 화조문단 안감을 대고 가장자리를 마무리하였는데, 드림 역시 갑옷과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되어 있다. 류성룡의 경우도 돼지가죽으로 갑찰을 만들고 이것을 서로 연결하여 갑옷을 만들었는데, 드림 역시 재질이 철이라는 점이 다를 뿐 갑찰을 연결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18·19세기의 투구에는 감투의 표면에 용이나 봉황을 화려하게 새긴 금속장식을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류성룡과 정공청의 투구에는 장식문양이 없고, 이완(1602~1674)의 투구부터 장식이 조금씩 더해지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기에는 장식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

IV. 임진왜란기 상급 수군 투구의 대표유물 선정과 일러스트화 제작

1. 대표유물 선정

임진왜란기 상급 수군 투구의 유형별 조형 특성을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침주형 투구와 드림형 투구의 대표유물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표 9>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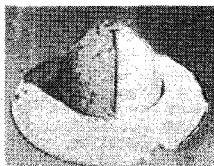



첫째, 임진왜란기에 착용된 침주형 투구의 조형 특성을 보면, 감투가 철제 네 조각으로 된 북발형이고 첨이 감투 둘레 전체에 있고 감투 표면에 장식이 없으며, 정개부가 화엽형 또는 원형의 철판으로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화엽형의 경우 보주형 장식과 상모가 더해졌다. 침주형 투구 유물에는 동래읍성 해자출토 투구와 정충신·황대곤의 투구가 있는데, 전체적인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황대곤의 투구는 철제 네 조각이 근철로 연결되어 있는 철제 감투로서 정개부가 화엽형 철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모와 끈을 달면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에 그려져 있는 침주와 거의 동일하다. 동래읍성 해자출토 투구는 정상에 보주형 장식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황대곤의 투구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황대곤의 투구와 동래읍성 해자출토 투구를 각각 임진왜란기 침주형 투구의 대표유물로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임진왜란기에 착용된 드림형 투구의 조형 특성을 보면, 발부와 정개부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으나, 드림부는 이미 18·19세기의 투구와 동일한 형태로 발달된 상태이다. 즉 반원형의 첨이 앞에만 달리고 간주가 없는 북발형 투구도 있고, 전비가 달리고 간주가 있고 간주 위에 정개장식이 있는 만곡형 투구도 있는데, 양자 모두 표면에 금속장식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드림형 투구 유물에는 류성룡·정공칭·이완의 유물이 있는데, 이완의 투구는 감투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성이 떨어진다. 류성룡과 정공칭의 투구는 모두 감투부분이 철제 네 조각으로 되어 있는 유물이지만, 류성룡의 투구에는 간주가 없고, 정공칭의 투구에는 간주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임진왜란기에 착용된 드림형 투구 중 간주가 없는 투구는 류성룡의 투구를, 간주가 있는 투구는 정공칭의 투구를 각각 대표유물로 제안하고자 한다. 류성룡의 투구에는 보주형 장식에 상모를 달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공칭의 투구에는 18·19세기의 투구와 같이 간주 위에 있는 원형의 낫쇠판에 상모를 달고 그 위에 장식품을 엮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일러스트화 제작

임진왜란기 상급 수군이 착용하였던 투구의 유형별 대표유물을 중심으로 일러스트화를 제작하고자 한다. 일러스트화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Painter와 Photoshop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제작과정은

<표 9> 임진왜란기 상급 수군의 투구 대표유물

침주형 투구 (황대곤 투구·동래읍성 해자출토 투구)	드림형 투구		
	간주 없는 투구 (류성룡 투구)	간주 있는 투구 (정공칭 투구)	
			
보주형 장식·상모 추가		상모 추가	정개장식·드림 추가

〈표 10〉 임진왜란기 상급 수군의 투구 일러스트화

침주형 투구		드림형 투구	
		간주 없는 투구	간주 있는 투구
			

① 문헌과 유물자료의 조형특성 분석→ ② 조형특성에 기초하여 밑그림 스케치→ ③ Painter와 Photoshop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밑그림 제작→ ④ 밑그림 채색→ ⑤ 수정 및 보완 등의 순이다. 〈표 10〉은 임진왜란기 상급 수군이 착용하였던 투구를 유형별로 일러스트화한 것이다.

V. 결론

이상으로 임진왜란기(1592~1598)에 상급 수군이 착용하였던 투구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진왜란기에 상급 수군이 착용했던 투구는 기본 구조와 명칭에 있어서 18·19세기의 투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침[차양]과 드림의 유무에 따라 원주형 투구·침주형 투구·드림형 투구로 분류된다. 원주형 투구는 감투가 네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침과 드림이 모두 없는 투구로서, 현존하는 유물은 없는 상태이다. 침주형 투구는 감투가 네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침은 있으나 드림은 없는 투구로서, 현존하는 유물로는 동래읍성 해자출토 투구와 정충신·황대곤의 투구가 있다. 드림형 투구는 감투가 네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투의 앞에 반원형의 침 또는 침이 약화된 전비가 있고 드림도 있는 투구로서, 현존하는 유물로는 류성룡·정공칭·이완의 투구가 있다.

2. 임진왜란기에 착용된 침주형 투구의 조형 특성을 보면, 감투가 철제 네 조각으로 된 북발형이고 침이 감투 둘레 전체에 있고 감투 표면에 장식이 없으며, 정개부를 화엽형(花葉型) 또는 원형의 철관으로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보주형(寶珠型) 장식과 상모 장식이 더해졌다. 현존하는 침주형 투구의 유물 중 이러한 조형 특성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는 유물은 동래읍성 해자출토 투구와 황대곤(1577~1636)의 투구라고 생각되므로 이를 대표 유물로 제안하고자 한다.

3. 임진왜란기에 착용된 드림형 투구는 감투의 모양과 간주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양식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감투가 철제 네 조각으로 된 북발형 투구로서, 감투의 앞에만 반원형의 침이 있고 정상에 간주 없이 바로 보주형의 장식과 상모가 있는 유형이다. 이러한 조형 특성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는 유물은 류성룡(1542~1607)의 투구라고 생각되므로 이를 대표 유물로 제안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감투가 철제 네 조각으로 된 만곡형 투구로서, 감투의 앞면 전비와 미비가 있고 정상에 간주가 있고 그 위에 정개장식이 있는 유형이다. 이러한 조형 특성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는 유물은 정공칭(?~1610)의 투구라고 생각되므로 이를 대표 유물로 제안하고자 한다.

4. 투구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임진왜란기의 투구는 유형·형태·재질면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나타낸다. 유형면에서 임진왜란기에는 침주형 투구와

드림형 투구가 모두 착용되었으나 18·19세기에는 드림형 투구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고, 형태면에서 임진왜란기에는 간주가 없는 북발형 투구와 간주가 있는 만곡형 투구가 공존하였으나 18·19세기에는 간주가 있는 만곡형 투구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재질면에서 임진왜란기에는 철제 투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화약무기가 발달함에 따라 무거운 철제보다 가벼운 피혁제나 종이로 만든 갑주가 선호되면서 18·19세기에는 피혁제에 흑칠을 한 투구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참고문헌

- 1) 이민웅 (2004). *임진왜란 해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pp. 18-19.
- 2) 장학근 (1967). 임란기 선조의 전락사고와 수군의 입장. *檀國史學會, 史學志(제1집)*.
方相鉉 (1991). *朝鮮初期 水軍制度*. 서울: 민족문화사.
장학근 외 지음 (1997). *조선시대 수군*. 서울: 신서원.
오봉근 (1998). *조선수군사*. 서울: 한국문화사.
김주식 외 지음 (1999·2000·2002·2003). *조선시대 수군(실록발해수군관련사료집 2, 3-1, 3-2, 4, 5, 6)*. 서울: 신서원.
임원빈 외 공편 (2004). *조선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서울: 신서원.
이민웅. *앞의 책*.
- 3) 方相鉉 (1991). *앞의 책*, pp. 181-182.
- 4) 李康七 (1978). *韓國의 甲冑小考 -豆鎡鱗甲冑를 中心으로-*. *고고미술*, 136·137.
李康七 (1981). *韓國의 甲冑. 服飾*, 5.
송계현 (1988). *삼국시대 갑주의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계현 (2002). 한국고대의 갑옷과 투구. 국립김해박물관, *韓國 古代의 甲冑*.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국의 군복식 발달사(I)*.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김정자 (1998). *한국군복의 변천사 연구*. 서울: 민속원.
장경숙 (1999). *영남지역 출토 縱長板冑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경숙 (2005). *한국 고대 갑옷과 투구의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가영 (2003).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가영 (2008). 조선시대의 갑주유물의 감정을 위한 현황 파악과 시대 구분. *服飾*, 58(5).
민승기 (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서울: 가람기획.
- 5) 국립중앙박물관 (2007). *하늘이 내린 제상 류성룡*.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pp. 102-103.
김정자. *앞의 책*, pp. 241-242.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② -복식-*.
자수편-. 대전: 문화재청, pp. 161-162.
李康七. *앞의 책*, p. 26.
부산고통공단·慶南文化財研究院 (2010). *東萊邑城 塚字 II -도면·사진-*. 창원: 慶南文化財研究院, p. 129, 265.
부산고통공단·慶南文化財研究院 (2010). *東萊邑城 塚字 II -본문·부록-*. 창원: 慶南文化財研究院, p. 81, 134.
문화재관리국 (1987). *韓國의 甲冑*. 서울: 문화재관리국, p. 193.
자료검색일 2010. 4. 7, 자료출처 <http://www.muse.net.or.kr>.
李康七 (1999). 貞眞公 李滄 장군 遺物에 대하여 -주로 입사 상감을 중심으로-.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학예지(6)*, pp. 5-9.
유선혜 (2006). *李滄(1602-1674)將軍 頭釘鐵甲 제작기법과 복원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6-79.
- 6) 자료검색일 2010. 4. 7, 자료출처 www.ghvtv.kr
- 7)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102-103.
김정자. *앞의 책*, pp. 100-101.
김홍 편저 (2001). *韓國의 軍制史*. 서울: 학연문화사, p. 148.
- 8) 부산박물관 (2009). *조선전기 동래읍성 해자출토 발굴*. 부산: 부산박물관, p. 10.
- 9) *위의 책*, p. 13.
- 10) 제장명 (2006). 임진왜란 終戰後 李舜臣 幕下人物의 활동.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이순신연구논총(7)*, pp. 82-89.
- 11) 김강식 (2010). 조선 후기 동래부의 군사 조직과 운영.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37)*, p. 15.
- 12)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編 (2004). *中國織繡服飾全集 3*. 天津: 天津人民美術出版社, p. 81.
- 13) 李康七 (1978). *앞의 책*, pp. 231-232.
李康七 (1981). *앞의 책*, pp. 34-35.
김정자. *앞의 책*, pp. 240-250.
박가영 (2003). *앞의 책*, pp. 110-111.
민승기. *앞의 책*, pp. 362-369.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 287.
- 14) 민승기. *앞의 책*, p. 367.
- 15) 김정자. *앞의 책*.
박가영 (2003). *앞의 책*.
- 16) 『세종실록』 오례 군례서례 병기 갑주 : 『국조오례의』 서례 권지4 군례 병기도설.
- 17) 박가영 (2003). *앞의 책*, p. 110.
- 18)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광해군 9년(1617년) 왕명에 의하여 홍문관 부제학 이성(李愷) 등이 편찬한 18권 18책의 목판본 그림책이다. 원래 1615년에 완성되었으나 막대한 간행 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각 도에 간행을 분담시켜 1617년에 완간되었다. 이는 조선 초기에 간행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의 속편이다 (국립진주박물관 (2003). *삶에서 신화까지 충무공 이순신*. 진주: 국립진주박물관, pp. 130-131).

- 19) <당포전양승첩지도(唐浦戰洋勝捷之圖)>는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시도유형문화재 제 147호이다. 가로 80cm·세로 150cm 크기의 견본(絹本)으로서, 조선 선조 37년(1604)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침공을 막아냈던 공신들에게 포상품으로 하사했던 그림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승첩도는 임란과 관계된 문화재로서 임진왜란 당시 전선의 모습이나 전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전라남도(1988), 文化財圖錄. 광주: 光州日報出版局, p. 44).
- 20) 국립진주박물관, *앞의 책* : 국립광주박물관 자료제공(2009년 9월 30일).
- 21) 부산박물관, *앞의 책*, pp. 28-85.
- 22) 송계현 (2002), *앞의 책*, pp. 44-53.
조우현, 권준희, 박윤미, 김혜영, 조현진 (2007), *대가야복식*, 서울: 민속원, pp. 232-268.
- 23) 박가영 (2003), *앞의 책*, p. 110.
- 24) 이해구 역주 (2000), *신역 약학개법*, 서울: 국립국악원, p. 494-495.
김영숙 편저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p. 381.
- 25) 『세종실록』 오례 군례서례 병기 갑주 : 『국조오례의』 서례 권지4 군례 병기도설 : 이해구 역주, *앞의 책*, p. 495.
- 26) 박가영 (2003), *앞의 책*, p. 110.
- 27) 李康七 (1981), *앞의 책*, p. 26.
- 28) 본 연구의 '정왜기공도권(征倭紀功圖卷)' 관련 사진자료는 부산대학교 사학과 김동철 교수님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정왜기공도권은 임진정왜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 컬럼비아대학 Gary Ledyard 교수가 사진을 일본의 잡지에 기고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원본이 아니라 원본을 촬영한 11매의 사진이었으며, 현재 원본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정왜기공도권에는 1598년 당시 이순신이 인솔한 수군이 명나라 육군의 원조를 받아 고니시 유키나가 주둔하고 있던 순천지역에서 행한 전투 장면이 있다. 순천전투 후 전투는 일시적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그로부터 1개월 후 전쟁은 다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이순신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퇴각하는 일본군을 추격 중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이것이 노량해전인데 전투장면이 <정왜기공도권>에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http://www.searchnavi.com/~hp/rekishi/youyaku/07-1.htm> 秀吉の朝鮮侵攻最後の戰鬪図).
- 29) 김정자, *앞의 책*, p. 225.
- 30) 『조선왕조실록』중종 18년(1523) 6월 1일(경자) 「…斬倭頭二十級 倭箭十四介 漆竹弓一 環刀四 長劍一 槍五 槍柄一 護項四 甲裳一 鹿皮赤古里一 沙乙甲之六 刀鞘一 班衣二 臂赤一等封裹上送…」
- 31) 부산고통공단·慶南文化財研究院 (2010), *東萊邑城 塚字 II -본문·부록-*, p. 80.
- 32)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編 (2004), *中國織繡服飾全集 4*, 天津: 天津人民美術出版社, p. 225.
- 33) *위의 책*, p. 92.
- 34) *위의 책*, p. 71, 74, 105.
- 35) 국립대구박물관 (2004), *영남의 큰 고을 星州*, 대구: 통천문화사, pp. 108-109.
- 36)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188.
- 37) 김정자, *앞의 책*, p. 178.
김영숙 편저, *앞의 책*, p. 380.
- 38) 문화재청, *앞의 책*, pp. 161-162.
- 39)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210.
- 40) 김정자, *앞의 책*, pp. 240-241.
- 41) 본 연구에서는 투구의 감투를 복발형과 만곡형으로 분류하였다. 복발형은 이강칠 前 군사박물관장님, 만곡형은 송계현 前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님의 의견을 따라 명명한 용어이다.
- 42) 김정자, *앞의 책*, pp. 242-251.
- 43) 김정자, *앞의 책*, pp. 201, 251.